

# 70년 건축계의 이런일 저런일

1970의 경술년은 온통 사고 투성이의 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바다에서, 육지에서 그 어느해 보다도 큰  
 화재의 사건들이 빈번한데 대하여 건축계에서도 수 많  
 은 사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몇가지만 추려서 경술년의 회고를 더듬어  
 봅니다. (編輯者 註)

## ◆半島朝鮮 아케이트建物の 火災事件

解答者 車景淳 (半島朝鮮아케이트設計擔當者)

1970年頭正月 17日에 발생한 火災는 同 建物内  
 의 여러 商店을 불태워 막대한 손실을 입혔을뿐만  
 아니라 既存R.C.構造의 建物에도 처량한 피해를 주  
 었던 것으로 同 火災의 原因은 隣接建築工事場(新  
 建物)에 마련된 경비원 헛간에서 잠자고 있던 人  
 夫의 不注意로 피워놓고 있던 石油난로를 잠결에  
 거더차서 넘어뜨렸는데 이로 인해서 흘러나온 石  
 油에 引火가 되어 번지는 불길의 隣接된 同아케이  
 트의 窓을 불태워 침입한 화염이 아케이트内に 쌓  
 아놓은 각종 섬유류등 여러가지 商品에도 불이 붙  
 어 고요한 겨울밤에 저렇듯 무서운 災難을 초래시  
 켜던 것이다. 뒤늦게 火災를 알아낸 消防署에서는  
 급히 현장에 出動했으나 꼭 닫힌 샷타를 열어주는  
 사람이 없어 당황한 한편 차디찬 겨울밤의 수도물  
 은 호스에서 얼어붙어 噴射가 잘 되지 않았다. 특  
 히나 隣接한 골목길은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없어  
 不得已 小公洞 大路에서 호스를 끌어 鎮火作業을  
 하게 되었다.

이 火災의 結果로서 推定되는 問題點을 檢討해  
 본다던

- 1) 아무리 耐火構造의 R.C 建物이라도 採光유리  
 창에서 불길을 뿜으며 被壞浸入되는 불길은 막  
 을 길이 없으며,
- 2) 耐火構造의 建物안에 쌓아놓은 섬유류등 여러 物  
 件에 따라 延燒되는 火災는 窮極의으로 建物内  
 의 모든 物件을 燒火시키며 及己也는 建物自体

에도 莫大한 損傷을 준다.

- 3) 百貨店等に 使用되는 샷타等 閉門은 有事時에  
 금방 열어줄 수 있는 장치와 人員의 配定없이는  
 이러한 火災時의 消火作業에 커다란 支障을 준  
 다.
- 4) 이러한 百貨店等에는 스프링쿨라 등의 防火設  
 備가 없이는 災難을 막을 길이 없다.
- 5) 同 아케이트 火災의 慘狀을 調査하여 본 結果  
 는 500℃에서 1000℃ 以上되는 高熱度가 철근콘  
 크리트 構造物 깊숙히 전번되어 建物의 致命적  
 인 損傷을 더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特記  
 할 것은 콘크리트被服이 얇은 床版等 피해가 더  
 우 심하였다.
- 6) 既存 아케이트建物内에는 2個所의 中間防火  
 샷타가 있으나 商品이 가로 막혀서 샷타를 내리  
 지 못하여 防火샷타의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였  
 다.
- 7) 天井内 換氣덕트 및 埋込電線等으로 火焰이 遠  
 巨離까지 延燒되었으므로 이러한 點을 設計時에  
 有意할 것으로 안다.
- 8) 이러한 現況의 建物은 서울市内에는 不知其數  
 이며 建築事業을 專擔하는 여러 會員은 勿論 當  
 局에서도 앞으로 研究課題가 되어야 마땅할 것  
 임을 強調한다.  
 耐火建築物防止에 對한 參考事項을 말씀드리면,  
 1) 콘크리트被服을 普通以上 可能하면 5cm 以上

을 要한다.

- 2) 天井内 닥트等은 中間에 차단 시설을 할것.
- 3) 天井等은 不燃材料를 使用할 것.

4) 防火샷타는 電氣自動式으로 할 것.

5) 隣接建物の 窓에는 반드시 防火샷타를 設置할 것.

## ◆國展에서 建築部門이 除外된데 대하여

해답자 崔昌奎

문교부는 1956년 제 5 회 국전때부터 건축부문이 신설되었다. 못 건축인들과 지성있는 국민은 문교부의 처사에 박수를 보냈다. 문공부가 국전을 문교부로 부터 이관하게 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즉 그전부터 있던 신인에술상제도가 없어졌다. 우리는 놀랐고 젊은 건축학도들은 공식 공모전이라고는 오직 국전 뿐이었는데 문공부가 국전에서 건축부문 마저 제외시키므로서 발표의 기회를 잃게 되었다(1970년도). 이러한 처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始初는 文公部가 하는 新人藝術展에서 國展에 包含되어 있는 美術, 建築, 寫眞이 除外된다고 했다. 그것은 수궁이 가는 것이었는데 그후 新人藝術展 全部가 없어지고 곧 이어 國展에서도 建築部門이 除外되었다는 것은 文公部處事에 理解하기 곤라하다. 그래서 建築家協會에서는 젊은이들의 공모전으로 가난한 經濟條件에도 불구하고 또 젊은 建築學徒들의 要請에 依하여 協會展으로 新人建築展을 마련했다. 이처럼 文公部의 文化政策을 立案하는 者들의 沒知覺과 여기에 呼應 내지 同調하는 他部門 藝術人들의 無知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할수 밖에 없다.

요는 “建築이 藝術이나, 아니냐”에 있다. 古代로 부터의 文化史를 들여보거나 現在 各先進國에서의 建築文化에 對한 政策이나 國民들의 理解度로 보아도 알 것이다. 文公部의 官公吏들이나 他

部門 藝術人들이 建築이란 오직 人間의 生活道具 程度로 알고 있으니 寒心한 일이다.

始初 國展에 建築이 包含되었을 때는 快哉를 불렀다. 그러나 每年 國展의 建築部門은 他部門에 비해 빈약했다는 評이다. 이것은 建築人들의 參與意識이 不足한 責任도 있겠지만 出品數量이 적다는 것은 他部門보다 作品當 所要되는 時間, 經費, 作業量 및 人員等이 他部門에 比較할수 없으리만치 莫大하다는 것을 모르는 말이고 內容이나 質的인 門題에서는 他部門보다 뒤떨어진 일이 없다고 본다면 그런 誤識이 除外의 理由가 될수는 없다. 要는 國展을 左右하는 몇몇 要人들의 建築에 對한 無識이 除外된 큰 原因이라 할수밖에 없다. 그러면 建築界는 이 問題를 어찌할 것인가? 建築家協會가 當局에 몇번 Action을 取했으나 別無消息이다. 그러면 建築人들은 가만있을 것인가. 建築文化發展은 우리들이 할일이니 만큼 當局과 關係없이 建築人끼리 國展보다 더 훌륭한 建築展을 마련하는 일뿐이다. 方法은 있을 것이다. 卽 三個協會가 協力해서 汎建築人들이 모여서 一大 建築展을 國展을 능가할만한 建築公募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當局에게 政策面에서나 經濟面에서의 支援를 바랄 것도 없고 他部門 藝術人들을 說得할 必要도 없고 오직 우리끼리 우리들의 일을 하면 될 것이다.

## ◆ 卧牛아파트 事件과 그以後에 對해서

해답자 정만선

70년 4월 8일 새벽 6시 4분경 대동건설의 날림공사로 인해 15棟의 5층 건물의 네 기둥에 19

% 철근 7 個를 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 - 5 개 밖에 넣질 않았기 때문에 중상 38名 사망 32名이

라는 끔직한 도피 사건을 도발하고 말았다. 아직도 이 사건은 법적인 문제사항으로 세부적인 면은 차후로 머무기로 하자. ……

그런데 이 비극의 터가 불과 7개월여 만에 서울市內의 27個 地區 401棟의 市民아파트 보강상태와 환경조성 等に 대한 우열을 가름하는 「아파트」 競進大會에서 一等도 아닌 特等を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정말 흐뭇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11月26日의 이 競進大會의 發表를 듣기 위해 同 아파트의 어떤 주민은 직장에 결근까지 하면서 심사결과를 초조히 기다렸으며, 隣牛아파트가 1등도 아닌 特等を 차지했다는 發表에 주민들은 왔! 하고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는 것이다. 그들 주민들에게 정말 감격스러웠고 경사스러웠으리라!

주민의 어떤이는 이렇게 말한다. 「처음엔 하루 빨리 이곳을 헤어나가야겠다는 집념뿐이었어요. 길에서 친구를 만나도 隣牛아파트에 산다는 말을 못했어요. 또 어떤때는 시골서 친척이 올라왔을 때는 재울곳이 없어 난처했어요. 아파트에는 한사

코 들어 가지 않겠는지 뭘니까!」

이런 비극적인 그 자리에 오늘의 영광된 위치를 차지하는데는 수한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아파트 참사에 크게 뉘우친 마포구청 직원들이 주야없이 보강공사에 심혈을 기울였고 심지어 새로 부임한 韓鍾燮 구청장은 아예 천막을 치고 밤낮으로 붙어 살았다는 것이다. 그 어떤날은 억수같이 쏟아내리는 비를 사흘동안 꼬박맞으면서 현장감독을 하다가 그만 졸도까지 해서 병원으로 급히 옮겨지는등으로 인해서 官民의 諒가 크게 뭉쳐져 오늘의 결실을 갖은 原動力이라 아니할 수 없다.

도피후엔 그냥 가져라해도 싫다할만큼 시세가 폭락했던 것이 요즘은 90만원 이상을 훗가하며, 3.1 지구 아파트 보다도 훨씬 비싸다는 것이다. 특히 지층 상가는 150만원 이상이라고 하며 TV는 약 200대 가량으로 4 집에 1대꼴이며 전화는 교환전화로 120대가 가설되어 있다

이 밖에도 많은 화제는 지면상 생략키로 할 수밖에 없다.

## ◆工事監理 實施에 對해서

해답자 한 창진

### 工事監理 實施에 對한 意見

우리가 著作하는 設計意圖를 具顯시킬 수 있고 示方書와 契約條件에 合致된 工事施工을 期할 수 있다는 觀點에서 切實히 바라든 일이지만 우리에게 는 어렵고 무거운 責任과 負擔이라고 할수 있다.

安易한 適當主義는 뜻밖의 結果를 招來할 수 있을 것이다. 施工者의 빈축을 살수도 있고 建築主의 不信을 가져오게 할수도 있다.

監理者는 이 兩者間에서 公正하게 그 協助者도 되고 성실한 相談役도 될 수 있어야 할것이다.

아무튼 重要한 問題는 工事監理의 實施가 하나의 強制法規라는 image를 벗어나서 大衆이 그것을 바라고 하나의 當然條件이 될만큼 理解와 信賴를 얻을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全的으로 우리의 활탄에 屬한다.

…現行 工事監理 實施에 對한 要望事項

첫째, 完全한 設計圖의 著作과 內譯書明細 및 內容에 對한 徹底한 검토가 基本이고 確實한 示方書와 契約條件이 그 公證이다. 契約時의 監理者의 協力은 重要하다.

둘째, 監理者는 單純한 간섭에 끝이는 간섭자가 아니고 施工者의 가장 가까운 協助者로서 工事의 指導를 견해야 한다. 不斷의 研究와 關心을 기울일 義務를 가지며 施工主의 信賴를 얻어야 하는것은 勿論 施工主를 理解할수 있어야 한다.

셋째, 監理者에게 주어진 것은 職能上的 權限이지 權力은 아니다.

權力的 부여로 생각하는 것은 危險하다. 감정을 介在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公平한 지도자이며 相談役이어야 한다.

넷째, 施工過程에서 多少의 變更은 關聯 法規上 基本的으로 違法이 되지 않은 限 監理者의 裁量이 許容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不幸히도 야기될수 있는 技術上의 見解 差나 問議, 監理者의 횡포나 不實 또는 監理포기 等으로 비쳐지는 極限狀態 監理期間延長등에서 일 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야릇한 문제들을 解決해줄 수 있는 소청위원회랄까, 심판위원회 같은 감리지도 기구의 設置가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모르겠다.

…監理實施 以後의 業務量

設計業務와 別途로 一種의 기능자가 必要로 되었으며, 제대로의 監理業務를 施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機構가 必要할 것이다. 큰 現物 두개를 감당하자면 두개의 팀과 機構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관장하는 것은 이만저만의 業務量이 아니다.

## ◆高層建物 火災에 關하여

해답자 羅 相 振

今年 들어서 發生했던 世運商街와 三一路 빌딩의 火災事件은 그것이 비록 큰 피해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던져주는 問題點들로 因하여 建築界는 저널리즘의 통박한 공격을 면할 수 없었다.

대저 高層建物을 經濟的 社會的 要求에 依해 생기는 치밀히 계산된 必要惡인 空間秩序로 보지 않고 어떤 부동산 投企나 센세이션으로 보는 CLIENT도 그렇거니와 거기 비등하여 CLIENT나 社會에 대하여 피부적인 만족만을 던져주는 建築家들도 문제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高層建物의 問題點들은 차치하기로 하자. 적어도 高層建物의 火災에 關한한 우리들은 物理的 正確性을 가져야 한다. 正確性은 義務이지 美德이 아닐 것이다. 적어도 建築家라면 우리는 正確性이란 義務 이외에 또 다른 무엇을 追求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라. 正確性이란 그 義務마저도 放棄된채 온통 CHAOS 속에 방황하고만 있는 것이다. 建築家들은 그들의 作品으로 社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市民의 生命과 財產이 관계되는 火災에 關한한 한 市民으로서도 우리들의 市民社會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高層建物의 火災에 關한 問題點의 核心은 우리 社會의 高層建物에 對한 短見과 建築家의 無責任에 있다 할 것이다.

우리 社會의 短見이란 즉 設備費 對 全建築費의 RATIO를 낮게 생각하는 것인데 이러한 생각의 底邊은 걸치장만 적당히 해 놓으면 된다는 생각과 土地의 生産性보다 더 높은 生産性을 기대하는 생각이다. 실제로 安全性을 높이고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만한 高價의 設備費를 投資해서도 企業的 價値가 있는 建物을 세울만큼의 經濟的 배경과 企業精神이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의 經濟적 여건이 성숙해 있지 않거나 건전한 企業가 정신이 없는 高層建物計劃은 必然的으로 낮은 설비비를 가정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위생적 시설과 安全性이 弱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建築家의 무책임이란 이런 諸事實들을 認識하고 있으면서도 無責任한 設計를 해주는 行爲인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社會的 短見을 깨우쳐야 하는 것도 建築家들의 使命이고, 建築家들의 無責任 이란 그 原因이야 어디있던 우리 時代와 社會를 맞하기 前에 우리 모두가 깊은 自省이 있어야 할 것이다.